

특별기획시리 - 즈
제 159 회

금성치과의원 원장
- 김 규 문 -



제목 : 신비의 기적

복음서에 의하면

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것만으로 낫는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했다.

그리스도가 손을 내민다던지 병자가 예수의 옷을 만진다던지 접촉을 아주 중요시 하였다.

이 그림은 4세기 순교자 성도로테아를 그린 15세기초 목판화.

이와같이 성서에는 성인의 치료력 혹은 중개 능력이 어느정도 있다고 굳게 믿었다.

이그림은 문헌 국립판화콜렉션 소장